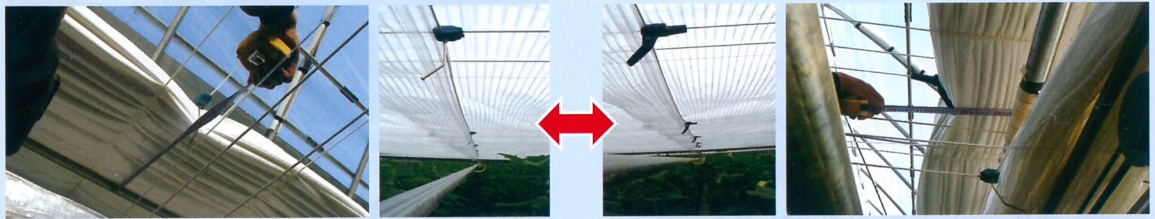


하우스 내부 두꺼운 부직포(보온덮개)대신 보온·차열(遮熱)까지 갖춘 4계절용 커튼 스카이크로스+윈터치-에인클립 콤비, 온실 안 그늘 최소화로 냉난방 최적 O.K

어떤 것이든 새로운 무엇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현실(현장)에 최대한 적용시켜, 보다 낮게 개선시키며 남보다 한발 앞서 최고를 만들어나가는 사람을 프론티어(Frontier)라고 한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도 이런 프론티어의 활발한 적용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급변하는 아열대 기후로 인한 한 여름철 혹서기와 더불어 갑작스러운 추위의 한 겨울철 혹한기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생산 농작물은 극도의 스트레스 몸살 즉 흉역을 치르게 되고 결국 제대로 된 농사짓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하고 극복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법. 이제 농사도 자신만의 특별한 재배 생산기술과 더불어 첨단 신개발 농자재의 활용 및 적용도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런 좋은 농자재 역시도 현장에 도입하려면 돈(투자)과 함께 앞서가는 프론티어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2중 보온 커튼을 접었을 때 일반 에인클립 사용 시 완전하게 밀지 못해서 접힌 폭 간격이 40cm 정도(줄자로 측정)인데 그만큼 많은 그늘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대로 1중의 스카이크로스를 덮었을 때도 팽팽하게 당겨지지 않아 느슨하게 예인되고 있음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윈터치 에인클립을 이용하게 되면 2중 보온 커튼이 되도록 완전하게 밀착되어... 접힌 폭이 25cm 정도로, 최소한의 그늘만 형성됨(줄자로 확인)을 한 눈에 비교 가능하며 특히 스카이크로스를 덮었을 때 강력한 지탱력으로 인해 예인선 자체가 팽팽하게 줄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윈터치 에인클립은 (주)신성에서 3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완성된 제품으로, 한종일 3국에 디자인 특허등록이 되어있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끔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지난해 10월호 본지 농경과원에 혹서기 극복, 딸기 육묘현장으로 경남 진주시 김옥수 농가 취재를 하였다. 대다수 고온을 막기 위해 단순히 뜨거운 햇볕만 막는 용도의 검은색 차광망이나 하우스 도포제를 많이 이용하는데 반해 50~60% 차광은 기본, 차열(적외선 차단)으로 인해 온도 하강효과와 더불어 햇볕 그 자체가 산란광(散亂光) 형태로 들어오게 하는 후아후아 네트를 심분 활용하여 튼실한 딸기 묘(苗)를 성공리에 생산하고 있었다. 그것도 작년 그 뜨거운 한 여름철에 말이다. 하지만 이 후아후아 네트는 일반 차광망보다 몇 배나 비싸고 국내에 초기 적용해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믿고 사용하란 쉽지 않는데... 이것을 100% 신뢰하고 사용하게끔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경남 진주시 소재 첨단 시설원예자재 전문기업 강창식(주)신성 대표이사다. 참! 대단하지 않은가?

믿고 사용해서 고온기를 극복하고 잘 길러낸 농가뿐만 아니라 추천해준 강창식 대표 역시 프론티어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꽃 피는 3월, 그에게서 봄바람에 좋은 소식(정보) 하나가 전해왔다. 한 달음에 달려갔다. 늘 한발 앞서 현장에 새로운 농자재들을 접목하다보니, 2배로 힘도 들지만 성공하면 그만큼 보람도 2배라면서...

온실 내부 커튼 대용 4계절용 냉난방에 최적 스카이크로스+접힌 폭을 최대한 예인, 하우스 내 그늘 최소화시키는 (주)신성 특허제품 윈터치-에인클립 콤비로 적정 환경조성

“저번의 후아후아 네트는 하우스 바깥, 필름 위에 덮어씌웠다가 육묘 생산 이후엔 벗겨내는 용도였다면... 이번에 소개할 것은 온실 안, 내부 커튼 대신으로 4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겨울철 혹한기 시 햇볕은 그대로 산란광 형태로 들어



스카이크로스가 접혀있는 모습. 바로 위쪽 2중 부직포 커튼이 접혀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그들이 최소화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폭 방향으로 완벽하게 접히도록 설계되어있는데 원래는 스카이크로스 확대 모습.



100% 덮여 활짝 펼쳐진 스카이크로스. 한 겨울철 보온성은 물론 한 여름철 차 열성까지 갖춘 4계절용 내부 커튼용으로, 우수한 보수성과 투수성의 특징도 지닌 특수 재질의 제품이다. 원래는 특수 실을 사용하여 내부에 공기층을 형성, 보온성을 극대화시켜 놓은 단면도.



작년 11월 중순에 정식 후 올해 2월초부터 애호박을 수확하고 있는 강현중 씨. 두꺼운 커튼대신 스카이크로스 설치로 온도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지 햇볕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최적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니까 생육 촉진과 더불어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고 한다. 흰가루병 약제 살포를 지금껏 단 2회만 그것도 예방차원에서 했다고(귀뜸)...

오게 하고 보온은 기본, 보수성(保水性)과 투수성(透水性)까지 겸비한 스카이크로스라는 제품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갑작스러운 고온기엔 차광 및 차열(적외선 차단)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한 번 설치하면 수평커튼용으로 열고 닫을 수 두꺼운 부직포(보온덮개) 대신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매번 확신이 가득 담긴 우렁찬 목소리로 얘기하는 강창식 대표. 늘 거침없이, 막힘없이 답하는 모습에서 신뢰도 100%를 느낄 수 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사용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아야 확실하지 않겠는가?

2월초에 우연히 들렀고 애호박이 좀 더 크면 한번 취재하자고 했었는데 벌써 수확이 한창이었다. 수확과 인큐베이터 비닐 씌우기 작업에 여념이 없었는데도 강현중 씨가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준다. 그리고 부직포 커튼 대신 스카이크로스를 선택,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 “겨울철 아침 온실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가 아주 심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내부에서도 큰 온도차를 보입니다.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생긴 냉기 때문에 1중과 2중 커튼을 마음대로 열지 못해요. 일단 냉기를 막아줘야 하므로, 결국 그만큼 햇볕을 받질 못하게 되고 그것은 웃자람으로 이어지죠. 과습이 원인인데 커튼을 열지 못하고 햇볕은 차단되고 자연 습도는 온실 내부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중 부직포 커튼을 열고 1중 스카이크로스를 펼쳐두기만 하면 햇볕은 그대로 산란광으로 투과되는 반면 온도차에 따른 냉기류(冷氣流) 피해는 거의 차단되며 적정 보온효과에다 벌써 광합성작용으로 생장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현중 씨가 작년 10월경에 설치해서 아직 어떤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른 아침의 양질의 광(光)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덧붙이며 바쁜 작업상 얘기를 이쯤에서 마무리한다.

스카이크로스는 20여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PO필름 전문업체인 (주)ARTS(대표 정두석, www.arts21.co.kr)가 수년간 연구 개발해온 일본 다이아텍스에서 제품화한 것을 직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주)신성(대표 강창식, T. 055) 755-9218)에서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하여 널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농원** · 김수경 기자



쾌적한 환경조건을 자랑하는 스카이크로스 설치 1ha 규모의 애호박 온실 아래 사진은 1중 스카이크로스과 2중 부직포 커튼 개폐 시 각각 외부 바람으로부터의 밀폐되게끔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다. 또한 입구 문 쪽에서 보면 3중 구조로 아주 철저하게 밀폐형 시공 모습. 그만큼 30% 이상 난방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